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특질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cial Attra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Clothing on The Trait Evaluation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가정과학연구소 연구원
교수 정명선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김재숙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Myung-sun Chu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Jae-sook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nd attribution theory, was to examine whether there exist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what is beautiful is good," in the present Korea, and if exist, what is the content of it. The index of the physical attractiveness of this study was the facial attractiveness judged by 30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appropriateness of clothing was manipulated by 4 types of clothing perceived appropriate for two assumed situations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ree female faces having high, medium, and low attractiveness were simulated with the same body dressed four types of clothing using CAD system, and a total of 12 stimulus persons were created.

A total of 524 male and female(262 of male, 262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from 3 universities in Kwangju, Korea were participated as subjects in this study.

The design for the experiment was a 3 x 4 x 2 randomaized factorial, with three levels of facial attractiveness (high, medium, low), and four types attire(formal- masculine, formal-feminine, casual-masculine, casual-feminine), two kinds of context (job interview, dating) in which perceptions were occurred.

The data were analysed using factor analysis, MANOVA, t-test and Duncan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acial attractiveness exert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evaluation of sociability, adjustment, and potency of her in both of two assumed situations ($p < .001$, respectively).
2. The appropriateness of stimulus person's clothing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evaluation of sociability of stimulus person in dating context ($p < .001$).
3. The gender of subjects did not influenced the trait evaluations in both of two assumed situations.

주제어(Key Words): 얼굴매력성(신체적 매력성)(facial attractiveness(physical attractiveness)), 의복적절성(appropriateness of clothing), 상황(situation), 특질판단(trait evalu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인관계에서 신체적 매력성(physical attractiveness)이 후광효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사회 심리학 자들에 의해 입증되어져 왔고, 그것이 신체적 매력성과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에 관한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흥미를 자극해왔다.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란 "아름다운 것이 좋다(What is beautiful is good)," 또는 "신체적인 미는 내면의 미, 정신적, 도덕적인 미의 표지이다(Physical beauty is the sign of an interior beauty, a spiritual and moral beauty)(Schiller, 1882)"로 표현되는 고정관념이며(Dion, Berscheid & Walster, 1972, 285), 신체적 외모(physical appearance)가 아름답다는 것이 사회적 이점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Dermer, & Thiel, 1975). Chia, Allred, Grossnickle과 Lee(1998)는 타인들에 관한 최초의 관찰들 중 하나가 그들의 신체적 매력성이며, 그것은 여러 차원에서 개인의 인상에 영향을 주거나 그것을 시발시키는 점화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Baron과 Byrne(1977)은 외모에 근거하여 타인들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였으며, 두 사람이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서로에 관해 잘 알기 전에는 오직 신체적 매력성 측면에 근거하여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첫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

았다.

근래 한국 사회에서도 취업 면접을 위시한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신체적 외모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외모 향상을 위한 의복 선택과 착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취약한 신체 부위를 성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에도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는 Miller(1970), Dion 등(1972)에 의해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대인매력의 한 요인이 되는 신체적 매력성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Byrne, London과 Reeves(1968)가 개발한 bogus stranger paradigm(가상적으로 낯선 사람을 설정한 페러다임)이 이용되어져온 것으로 알려진다(Feingold, 1998).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자가 신체적 매력성이 얼굴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가정해왔고(Brown, Cash & Noles, 1986), 판단자에게 졸업 앨범 사진의 매력성을 평가시켜 조작한 총체적인 얼굴의 매력성에 집중해왔다(Lennon, 1988).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주로 미국을 위시한 북아메리카에서, 의류학 분야에서보다는 사회 심리학 분야에서 더 많이 수행되어져왔다. 지각 대상의 신체와 관련된 의류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신체 이미지(body-image)가 대인지각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특히 한국의 경우 신체적 매력성 자체를 변인으로 한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의 김혜숙(1993)의 연구와 의류학 분야에서

의 이선경(1993)의 연구 외에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Goffman(1959)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회적 만남에서 무대 위의 배우처럼 최상의 연기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주시하였듯이(Raven & Rubin, 1976), 실제로 우리는 나날의 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타인에게 투사하기 위해 의복과 악세서리, 화장, 헤어스타일을 위시한 외모의 선택과 관리에 의지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신체적 매력성은 의복과 결합하여 타인에게 대상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한다는 Howeler와 Vrolijk(1970)의 주장, 사람들이 안경을 벗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자세를 교정하거나, 의복을 바꾸는 등의 외모 변화를 통해 신체적 매력성을 향상시킬 때 타인과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역시 증가한다고 밝혔던 Guise, Pollans와 Turkat(1982)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제에 관한 의류학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은 특별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Dion(1986)의 전망, 요구되는 판단이 문화적 신념과 가치를 활성화시킬 경우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신체적 매력성을 특질 추론에 이용할 수 있다는 Chen과 Shaffer(1997)의 문화적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신체적 매력성이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사회적, 심리적으로 더 영향을 줄 수 있고(Kenealy & Shaw, 1988), 여성의 신체가 더 자주 주시되고, 평가되고, 성적인 측면에서 언급되며(Wiederman & Hurst, 1998),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 돈, 에너지를 화장품, 의복, 기타 개인적인 치장에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Raven & Rubin, 1976)에 비추어 신체적 매력성이 남성에게보다는 여성에게 더 중요한 관심사일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여성을 지각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 매력성을 신체적 매력성 지표로 선정하고 의복의 적절성을 의복변인으로 선정하여 얼굴 매력성에 따른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하는지, 이 관계에서 의복적 적절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코자 하였다. 의복의 적절성은 상황에 비추어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Workman, 1984-1985) 적절성 조작을 위해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과 이성과의 교제 상황을 과제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 여부가 독립적으로, 또는 얼굴 매력성과 결합하여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코자 하였다. 또한 이 관계에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코자 하였다.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얼굴 매력성

지각 대상의 얼굴이 지각자에 의해 높은, 중간인, 낮은 매력성을 지닌 것으로 지각된 것으로서의 얼굴 매력성 수준을 의미한다.

2) 의복 적절성

지각 대상의 의복이 연구에서 설정한 상황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비조사에 근거하여 성과 중심적 상황에 적절한 의복은 포멀한 의복, 사교 중심적 상황에 적절한 의복은 캐주얼한 의복으로 조작된 개념이다.

3) 특질 판단

지각 대상의 특질들을 요인 분석하여 도출한 타인 배려성,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 차원 특질들에 대한 지각자의 판단을 의미한다.

4) 성과중심/사교중심 상황

의복 적절성 조작을 위해 설정한 상황 중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을 성과 중심 상황으로, 이성과의 데이트 상황을 사교중심 상황으로 명명한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연구의 이론적인 틀

신체적 매력성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을 인지적 전망하의 내현 성격이론과 귀인이론에 비추어 설명해왔기 때문에 본 연구는 두 이론에 근거하여 수행되었고 해석되었다.

1) 내현성격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

내현 성격이론이란 사람들이 종종 어떤 특질들이나 특성들이 서로 관련된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의 특성을 지닌다면, 그는 또한 다른 어떤 특성들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이며, 그것은 그 사람에 관한 아무런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Rosenberg & Sedlak, 1972). Bruner, Shapiro와 Tagiuri는 그러한 추론은 하나의 긍정적 특성은 다른 긍정적인 속성들이나 특질들의 추론을 접화하고, 하나의 부정적 특성은 부정적인 특성들의 추론을 접화하는 평가적 일관성을 따른다고 하였다. Bruner 등은 이처럼 하나의 특질이 다른 것과 관련된다는 추론적 그물(inferential net)을 “일상적인 성격이론(lay personality theory)”으로, Cronbach는 “내현 성격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으로 명명하였다(Brown, 1965). Lippman(1922)은 개인과 집단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스타일로 유형화하는 것을 고정관념이라 명명하였으며(Zanden, 1981), Zanden은 특히 인간이 태도의 대상일 때, 태도의 인지적 구성요소, 즉 우리가 한 특별한 사람에 대해 갖는 하나의 심상(mental picture)을 고정관념으로 보았다. Scheneider(1973)는 사람들이 소수의 중심 특질에 근거하여 타인에 관해 추론하며, 이러한 추론이 사회적 고정관념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Lennon과 Davis(1989)는 고정관념은 지각된 연령, 체형, 머리의 색, 지각된 사회적 지위, 인종이나 민족의 정체성, 성별 등의 시각적 특성들에 근거된다고 하였다. Kaiser(1990) 역시 사람들은 의복과 같은 이용 가능한 단서에 근거하여 한 개인을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고,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범주화하는 인지적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범주화를 고정관념이 형성될 수 있는 최초의 인지적 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Eagly 등(1991)은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가 신체적 매력성과 개인적 속성들 간의 추론적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아름다움과 좋다는 것(goodness)을 관련시킨 이 진술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다양한 특성들을 가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하였다.

2)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사회 심리학자들은 타인들의 분명한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들을 추론하는 과정을 귀인이라 지칭한다(Baron & Byrne, 1977, 56-58). 귀인이론의 창시자인 Heider(1958)는 사람들이 주변 세계에 대해 질서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 사건들을 예측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믿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타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 이르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Goudge와 Littrell(1989)은 귀인이론을 사람들의 행동이 해석되고 행동의 원인들이 인식되어지는 전망(perspective)으로 보았다. Kelley와 Sweat(1983-84)는 귀인 과정의 목표가 누군가의 의도와 행동이 그 사람의 성격에 상응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라 하였고, 상응추론으로부터의 개념, 즉 한 개인의 행동의 결과들이 그 개인의 성향 추론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정이 의복과 외모의 귀인을 설명하는 데에 이롭다고 보았다. Workman(1984-85)은 상응추론에 근거한 실험연구를 통해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위한 의복 적절성 지각이 원인 귀인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피험자들은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부적절한 의복을 주시하고, 해석하고, 원인을 추론했다는 것이다. Kerr와 Dell(1976)은 또한 의복과 역할간의 불일치가 지각자의 부정적인 판단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2. 신체적 매력성이 특질 판단에 미치는 영향

Lucker 등(1981)은 신체적 매력성 연구의 상당수

가 대인지각에서의 “후광효과”에 초점을 두었고, 일관성 있게 “아름다운 것이 좋다” 라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Wallster, Aronson, Abrahams와 Rottmann(1966)은 아름다움을 인상형성에서 중심특질로 알려진 따뜻함이나 차가움 보다 더 의미 있는 특질이라고 보았다. Eagly 등(1991)은 매력적인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더 호의적인 대우를 받고, 이러한 호의적 대우가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적 매력성은 다양한 긍정적 특질과 상관된다고 하였다. Bruch, Berko와 Haase(1998)는 신체적 매력성은 대인행동의 효율성과 높은 상관성을 갖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매력 없는 사람들보다 더 호의적인 인지적, 감정적 반응들을 이끌어 낼 것으로 추정하였다.

Moran III, McCullers와 Banlivi(1982)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사교성(sociability), 높은 지능 등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특질들이 부여되었던 반면, 신체적으로 매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체적 외모와 별 관련이 없거나 전혀 무관한 부정적 특질들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ich(1975)는 교사들이 신체적으로 매력 없는 어린이들에게보다 매력적인 어린이들에게 더 바람직한 특질을 부여했음을 발견하였다. Guise, Pollans과 Turkat(1982)은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의 사회적 능력(social skill)이 매력 없는 사람들의 사회적 능력보다 더 높게 지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eingold(1992)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매력 없는 사람들보다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지적이고, 지배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3.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이 특질 판단에 미치는 영향

상황이란 개인의 내적 특성과 외부의 자극 특성에서 비롯되지 않으면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관찰될 수 있고, 현재의 행동에 명백하고도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으로 정의된다(박은주, 이은영, 1993). Rowold(1984)는 지각자들이 신체

적 외모 단서들의 의미에 관한 내현성격 이론에 근거하여 착의된 신체에 반응한다고 하였고, Kaiser(1983-1984)는 지각 대상이 착용하는 의복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을 정의나 해석에 도움을 주는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Rosencranz(1972)도 이러한 상황의 인지가 특정한 시각적 단서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가장 중요한 단서들 중 하나가 의복이라고 하였다. Forsythe, Drake와 Hogan(1985)은 착의자에 관한 정보가 적거나 모호할 때 의복 단서가 그에 관한 추론의 근거가 되며, 특히 응모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된 채용 면접 상황에서 외모가 중요한 정보원이 된다고 하였다. Workman(1984-85)은 한 개인이 착용한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 여부가 타인들이 그에 대해 형성하는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고, 의복의 적절성은 상황에 비추어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의복이라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거나 부적절하게 지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 Goudge와 Littrell(1989)은 직업시장이 점점 더 경쟁적이 되어감에 따라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에서 적절한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관념이 보편화되고 있고, 특히 관리직을 얻으려는 여성에게 적절한 의복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음을 주시하였다. Christman과 Branson(1990)은 고용 담당 면접자가 첫 4분 동안에 선택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주시하고, 이는 면접자들이 의복과 신체적 외모 같은 비언어적 단서에 근거하여 장래의 피고용인의 특질을 추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Johnson과 Roach-Higgins(1987)는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에서 여성 응모자의 신체적 매력성보다 의복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이를 채용 담당자가 직업 면접에 부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는 사람은 다른 직업적 상황에서도 실수하기 쉬운 것으로 지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하였다.

4. 성별에 따른 신체적 매력성 지각 차이

Byrne 등(1968)은 신체적 매력성 효과라는 측면에 아무런 성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ipboye 등(1975)은 관리직 채용을 위한 선발 과정

에서, 전문적인 면접자들의 성에 관계없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남녀 응모자들이 관리직에 더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발견했다. Dipboye 등(1977)도 채용을 위한 평가에서 응모자의 성과 면접자의 성의 개인적 상호작용을 조사한 결과 평가자의 성이 응모자들의 평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Eagly 등(1991) 역시 피험자의 성을 위시한 피험자의 특성 차이가 신체적 매력성 지각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를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남녀 모두에게 널리 공유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Stroebe 등(1971)은 Byrne 등(1968)의 연구에서 성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신체적 매력성 수준들 간 충분한 차이가 없었던 것에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매력적인 대상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중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뿐 특출하게 아름다운 남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Hickling 등(1979)은 여성 판단자들이 남성 판단자들보다 여성에 대해 더 호의적이었음을 발견했고, Feingold(1990)는 신체적 매력성 연구의 메타 분석 결과 적어도 로맨틱한 매력이 고려될 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신체적 매력성에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하였다. Wiederman과 Hurst(1998)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잠재적 배우자의 신체적 매력성에 실제로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Buss와 Barnes(1986)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잠재적 파트너의 신체적 매력성을 더 가치있게 여긴다고 하였다. Brown(1994)은 한국 사회에서 신체적 매력성이 여성에게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하게 지각되었다고 밝혔다. Buss(1989) 역시 다수의 문화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잠재적 파트너의 매력성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Rowatt, Cunningham과 Druen(1998), Dijkstra와 Buunk(1998)도 남성은 여성보다 젊음과 신체적 매력성을 더 가치있게 여기고,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와 야망을 더 가치 있는 단서로 여기기 때문에 남녀간 신체적 매력성 지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문헌 고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5. 연구 가설

가설 1: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은 자극 인물의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극 인물의 의복 적절성은 자극인물의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피험자의 성별은 자극인물의 특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은 상호작용하여 자극 인물의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피험자의 성별은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 의복적절성과 상호작용하여 자극 인물에 대한 특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실험 설계

본 연구의 기본 설계는 3(얼굴 매력성: 높은, 중간, 낮은)×4(의복의 유형: 포멀한 스커트정장, 포멀한 바지정장, 캐주얼한 청바지 차림, 캐주얼한 스커트 차림)×2(과제 상황: 성과 중심/사교 중심) 요인 설계로 하였다.

2. 실험 자극물 제작

1) 자극물의 얼굴 매력성 조작

4학년 여대생 60명의 정면 얼굴을 촬영, 9cm x 12cm 크기로 인화한 후 4학년 여대생 20명으로 구성된 판단자 집단에게 제시하여 지각된 매력성을 1(높은), 2(중간인), 3(낮은)으로 표시케 하여, 각 범주에서 판단자의 일치도가 가장 높은 1명씩의 얼굴 사진을 자극 인물의 얼굴로 선정하였다.

2) 자극 인물의 의복 적절성 조작

4학년 여대생 30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집단에게 설정된 상황에 적절한 의복 범주를 설문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성과 중심 상황)에 적절한 의복 유

형은 포멀한 의복, 데이트(사교 중심 상황)에 적절한 의복 유형은 캐주얼한 의복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설정된 의복 유형을 남성적인-여성적인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포멀한 바지정장, 포멀한 스커트정장, 캐주얼한 바지 차림, 캐주얼한 스커트 차림으로 결정하였다. 각 범주 당 4벌씩의 의복을 예비조사 집단에게 제시하여, 두 상황 각각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1벌씩 총 4벌의 의복을 실험의 복으로 선정하였다.

3) 자극 인물 선정 및 사진 촬영

자극 인물의 체형을 통제하기 위해 얼굴 매력성 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에 참여했던 60명의 여대생 중 판단자 집단에 의해 가장 균형있는 체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 1명을 착의모델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4벌의 의복을 착의 모델에게 착용시켜 정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착의모델의 신장은 165cm, 체중 52Kg으로 파악되었다.

4) 자극 인물 제작

1명의 착의 모델의 체형에 4유형의 의복을 착용시켜 정면 사진을 촬영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력성 수준이 다른 3개의 얼굴 사진과 교체시켜 합성한 후 10cm x 16cm 크기로 출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2개의 자극 인물 사진이 제작되었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12개의 자극 인물 사진 중 1개의 사진이 부착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질문지는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과 이성과의 데이트 상황에 사용될 2종으로 제작하였으며, 2종의 질문지 내용은 상황 시나리오만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1) 특질 선정

자극 인물의 특질을 구성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선행 연구(Eagly 등, 1991; Feingold, 1992)에 근거하여 선정된 총 24개의 양극 특질을 7점 의미미분 척도로 구성하였다.

2) 얼굴 매력성 판단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조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매력있는-매력없는', '멋있는-멋없는', '아름다운-아름답지 않은'의 3문항을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3) 의복 적절성 판단

자극 인물이 착용한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 조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진 속의 여성이 착용하고 있는 의복이 채용(데이트) 상황에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문항을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4) 기타

피험자의 성별, 나이, 전공 등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4. 피험자

본 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3, 4학년 남녀 대학생 총 552명으로 하였고, 24개의 실험 조건에 무작위로 남녀 동수(남학생 276명, 여학생 276명)를 할당하였다.

피험자들의 전공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험자의 연령은 21세부터 28세에 걸쳐 분포되었다.

5. 실험 절차

제작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수준 조작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에 걸쳐 본 실험의 피험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여대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1999년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피험자에게 24개 실험 조건들 중 1개의 실험 조건에 해당하는 질문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피험자들로 하여금 질문지에 부착된 여성의 사진과 제시된 상황 시나리오를 읽고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피험자들로부터 수집된 질문지 552부 중 응답이 불완전한 28부를 제외한 524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7.5.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분산분석, t-test,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7. 실험 자극 인물 조작의 타당도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1) 얼굴 매력성 조작의 타당도 검증

얼굴 매력성 조작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7점 척도로 구성된 3문항에 부여된 점수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3명의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간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 적절성 조작의 타당도 검증

의복의 적절성 조작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채용면접 상황에는 포멀한 바지 정장과 포멀한 스커트 정장이 캐주얼한 바지 차림과 캐주얼한 스커트차림보다 유의하게 더 적절한 것으로 지각되었다($p < .001$). 사고 중심 상황에서는 캐주

얼한 바지 차림과 캐주얼한 스커트 차림이 유의하게 더 적절한 것으로 지각되었다($p < .001$). 따라서 포멀한 의복을 성과 중심 상황에 적절한 의복으로, 캐주얼한 의복을 사고 중심 상황에 적절한 의복으로 조작한 것에 대한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3)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우선 특질 차원을 도출하기 위하여 24개 의미미분 척도를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표 3>에서처럼 고유치 1이상이고 요인 부하량 .40 이상인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4개의 특질 차원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76, .78, .60, .62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19.5%를 설명하였고, 타인을 배려하는 특질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타인 배려성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14.3%를 설명하였으며, 약한-강한 등의 특질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역능성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 변량의 12.6%를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으로 불안한-정서적으로 안정된 등의 특질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적응성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표 1> 얼굴 매력성 조작 검증 결과

(n=524)

매력성지각	얼굴 매력성 수준	상(N=177)	중(N=173)	하(N=174)	전체(N=524)	F-Value
평균(표준편차)		4.28(1.23)a A	3.19(1.05) B	2.45(1.08) C	3.31(1.35)	118.09***

***: $p < .001$ a: 평균(표준편차) ABC: Duncan Test 결과

<표 2>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 조작 검증 결과

상 황	의복 범주	평균(S.D)	F값
성과 중심	적절한	포멀한 바지정장	3.97(1.44) A
		포멀한 스커트 정장	4.00(1.40) A
	부적절한	캐주얼한 바지차림	2.40(1.29) B
		캐주얼한 스커트차림	2.20(1.15) B
사고 중심	적절한	캐주얼한 바지 차림	4.48(1.36) A
		캐주얼한 스커트 차림	4.06(1.46) A
	부적절한	포멀한 바지 정장	3.01(1.56) B
		포멀한 스커트 정장	3.00(1.49) B

***: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3〉 의미미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특질 차원	요인부하량	고유값	전체 변량(%)	누적 변량(%)	신뢰도
요인1: 타인 배려성 너그럽지 않은-너그러운 부정직한-정직한 진실하지 않은-진실한 동정적이 아닌-동정적인 친절하지 않은-친절한	.757 .730 .697 .632 .606	2.66	19.5%	19.5%	.76
요인2: 역능성 약한-강한 복종적인-지배적인 주장이 약한-주장이 강한 야심없는-야심있는	.797 .767 .747 .742	2.57	14.3%	33.8%	.78
요인3: 적응성 정서적으로 불안한-정서적으로 안정된 지적이 아닌-지적인 경솔한-신중함 미성숙한-성숙한	.656 .637 .637 .620	2.28	12.6%	46.4%	.60
요인4: 사교성 비사교적인-사교적인 이성을 싫어하는-이성을 좋아하는 이성이 싫어하는-이성이 좋아하는	.756 .685 .640	1.81	10.7%	57.1%	.62

요인 4는 전체 변량의 10.7%를 설명하였으며, 사교적인-비사교적인 등의 특질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사교성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 성별이 특질 판단에 미친 영향

독립변인을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 성별로 하고, 종속변인을 특질 판단으로 하여 상황별 4원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과 같이 나타났다. 의복 적절성은 성과 중심 상황에서는 포말한 스커트 정장과 바지 정장을 적절한 의복으로, 사교 중심 맥락에서는 캐주얼한 스커트 차림과 바지 차림을 적절한 의복으로 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성과 중심 상황에서 자극인물의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미친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의

주 효과는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 차원 특질 판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각각 $p<.001$), 의복 적절성의 주 효과는 사교성, 역능성 차원 특질 판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그러나, 피험자의 성별이 특질 판단에 미친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극인물의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미친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교성 차원 특질 판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의복 적절성과 피험자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교성 차원과 적응성 차원 특질 판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각각 $p<.05$).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교성 차원 특질 판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p<.01$).

다음으로, 사교 중심 상황에서 자극인물의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미친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의 주 효과는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 차원 특질 판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각각 $p<.001$). 특질 판단에 미친 의복 적절성의 주 효과는 사교성, 적응성 차원 특질 판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각각

〈표 4〉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 성별이 특질 판단에 미친 영향

(n=524)

상 황	효 과	독립변인	특질 차원-F값				
			타인배려성 차원	사교성 차원	적응성 차원	역능성 차원	
성과 중심 상황	주 효과	얼굴 매력성	.678	40.603***	11.380***	10.092***	
		의복 적절성	.155	21.562***	3.821	14.524***	
		성별	.010	.001	1.547	1.946	
	2원 상호작용	얼굴매력성*성별	.414	.050	.222	.671	
		의복적절성*성별	.271	4.338*	5.382*	1.284	
		얼굴매력성*의복적절성	.551	4.844**	.794	.096	
	3원 상호작용	얼굴매력성*의복적절성*성별	.790	.405	.026	.504	
	사교 중심 상황	주 효과	얼굴 매력성	1.083	28.200***	12.443***	18.191***
			의복 적절성	.001	17.437***	13.956***	.120
성별			.236	.219	.011	.570	
2원 상호작용		얼굴매력성*성별	.736	.694	.263	1.693	
		의복적절성*성별	.465	.017	.142	1.379	
		얼굴매력성*의복적절성	.981	.006	1.960	2.640	
3원 상호작용		얼굴매력성*의복적절성*성별	1.772	.187	.290	.166	

** : p<.01 *** : p<.001

p<.001). 피험자의 성별이 특질 판단에 미친 주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친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독립변인의 주 효과와 2원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검증과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 ~ 〈표 10〉과 같다.

1) 성과 중심 상황

(1) 얼굴 매력성이 특질 판단에 미친 주 효과

자극인물의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 차원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은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각각 p<.001), 사교성 특질은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높을수록 더 높게 판단되었다. 적응성 특질의 경우 얼굴 매력성이 높은 자극인물과 중간인 자극 인물 간, 역능성의 경우 매력성이 중간인 자극 인물과 낮은 자극 인물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2) 의복 적절성이 특질 판단에 미친 주 효과

자극인물의 의복 적절성에 따라 사교성, 역능성 차원 특질 판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각각 p<.001), 자극 인물이 상황에 부적절한(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자극 인물의 사교성, 역능성 차

〈표 5〉 얼굴 매력성 수준에 따른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 차원 특질 판단 차이

(n=262)

종속변인	얼굴매력성 수준	상	중	하	전체	F-값
사교성 차원		4.81(.94) ^a A	4.00(.93) B	3.63(1.03) C	4.14(1.03)	34.269***
적응성 차원		4.39(.77) A	4.58(.74) A	4.03(.83) B	4.33(.81)	9.584***
역능성 차원		4.81(.92) A	4.15(1.10) B	4.28(1.06) B	4.41(1.06)	8.337***

a: 평균(표준편차) ***: p<.001 ABC: Duncan Test 결과

원 특질이 더 높게 판단되었다(표 6).

(3) 의복 적절성과 성별이 특질 판단에 미친 상호 작용 효과

〈표 7〉에서 자극인물이 착용한 의복 범주가 동일했을 경우, 자극인물의 사교성 차원 특질은 자극인물이 적절한(포명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남성 피험자에 의해, 부적절한(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여성 피험자에 의해 더 높게 판단된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적응성 차원 특질은 자극인물이 부적절한(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 피험자에 의해 더 높게 판단되었다($p < .05$).

〈표 6〉 의복 적절성에 따른 사교성, 역능성 차원 특질 판단 차이 (n=262)

종속변인	의복적절성	적절한 의복	부적절한 의복	T-값
사교성 차원	적절한 의복	3.89(1.00)	4.39(1.02)	-4.02***
	부적절한 의복	4.17(1.05)	4.65(1.02)	-3.738***

a: 평균(표준편차) ***: $p < .001$

〈표 7〉 의복 적절성과 성별에 따른 사교성, 적응성 차원 특질 판단 차이 (n=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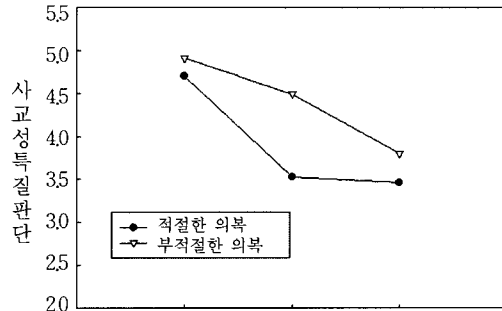
종속변인	얼굴매력성 수준		적절한 의복	부적절한 의복
	남	여		
사교성 차원	남		3.99(.94)a	4.25(.89)
	여		3.78(1.05)	4.52(1.10)
	t-값		1.185	-1.471
적응성 차원	남		4.48(.72)	4.05(.90)
	여		4.37(.77)	4.41(.82)
	t-값		.863	-2.40*

a: 평균(표준편차) *: $p < .05$

〈표 8〉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에 따른 사교성 특질 차원 판단 차이 (n=262)

의복 적절성	얼굴매력성 수준	상	중	하	전체	F-값
적절한 의복	상	4.70(1.03) ^a A	3.52(.65) B	3.46(.75) B	3.89(1.00)	31.604***
	중	4.91(.85) A	4.49(.94) B	3.80(.94) C	4.39(1.02)	
부적절한 의복	상	4.70(1.03) ^a A	3.52(.65) B	3.46(.75) B	3.89(1.00)	16.192***
	중	4.91(.85) A	4.49(.94) B	3.80(.94) C	4.39(1.02)	
t-값		-1.02	-5.64***	-1.87	-4.015***	

a: 평균(표준편차) ***: $p < .001$ ABC: Duncan Test 결과



〈그림 1〉 얼굴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사교성 특질 판단에 미친 상호 작용 효과

(4)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특질 판단에 미친 상호작용 효과

〈표 8〉에서 보면,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수준이 동일했을 경우, 의복 적절성에 따라 사교성 특질 판단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 < .001$), 얼굴 매력성이 중간인 자극인물이 상황에 적절한(포명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보다 부적절한(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사교성 특질이 더 높게 판단되었다. 이는 얼굴 매력성이 중간 수준이었을 때 캐주얼한 의복이 얼굴 매력성과 상호작용하여 사교성 차원 특질 판단에 상승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2) 사교 중심 상황

(1) 얼굴 매력성이 특질 판단에 미친 주 효과

〈표 9〉에서 보면, 자극인물의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 차원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은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표 9〉 얼굴 매력성에 따른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 차원 특질 판단 차이

(n=262)

종속변인	얼굴매력성 수준	상	중	하	전체	F-값
사교성 차원		4.52(1.01) ^a A	4.10(.95) B	3.45(.92) C	4.03(1.05)	21.564***
적응성 차원		4.78(.97) A	4.64(.72) A	4.09(1.17) B	4.51(1.02)	10.139***
역능성 차원		4.71(.99) A	4.05(.95) B	3.84(1.03) B	4.21(1.06)	15.048***

a: 평균(표준편차) ***: p<.001 ABC: Duncan Test 결과

며(p<.001), 성과 중심 상황에서처럼, 사교성 특질은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높을수록 더 높게 판단 되었으나, 적응성 차원 특질의 경우 얼굴 매력성이 높은 자극인물과 중간인 자극 인물 간, 역능성의 경우 매력성이 중간인 자극 인물과 낮은 자극 인물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 적절성이 특질 판단에 미친 주 효과

〈표 10〉에서 보면, 자극인물의 사교성, 적응성 차원의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은 의복 적절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1), 자극 인물의 사교성 차원 특질은 자극 인물이 적절한(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보다 부적절한(포멀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더 높게 판단되었다. 그러나, 적응성 차원의 특질은 자극인물이 부적절한(포멀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보다 적절한(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더 높게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두 상황 모두에서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 특질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사교성 특질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Eagly 등(1991)이 사회적 능력을 제외하고는 매력적인 외모와 특질간 관련성의 증거가 분명치 않다고 밝혔던 것과 상통되나, 얼굴 매력성이 높은 자극 인물의 사교성, 적응

〈표 10〉 의복 적절성에 따른 사교성, 적응성 차원 특질 판단 차이 (n=262)

종속변인	의복적절성	적절한	부적절한	T-값
사교성 차원		3.79(1.12)	4.30(.92)	-3.786***
적응성 차원		4.73(.92)	4.29(.83)	3.583***

a: 평균(표준편차) ***: p<.001

성, 역능성이 가장 높게 판단된 결과는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이 자극 인물의 특질에 대한 피험자의 판단에 후광효과로 작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는 차례로 한국 사회에도 아름다운 것이 좋다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한다. 또한 이 결과를 매력적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질들을 귀인시켜야 하고, 신체적 매력성에 부여하는 가치와 신념은 문화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Chen과 Shaffer(1997)의 문화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사교성, 적응성, 역능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질들로 보았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신체적 매력성에 부여하는 가치와 신념은 서구 사회의 그것들과 유사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내포한다. 타인 배려성을 제외한 상기의 특질들은 서구 사회에서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작용하는 특질 범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Wheeler & Kim).

둘째, 의복의 적절성이 두 상황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특질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적어도 의복이 개인적인 특성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고 하였던 Forsythe, Drake와 Hogan(1985)의 연구, 성격특질의 판단이 의복과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했던 Hoult(1954)의 연구, 개인의 성격특질과 사회적 지위의 판단이 의복에 근거된다고 하였던 Douty(1963)의 연구를 지지한다. 그러나, 성과 중심 상황에서 자극 인물이 상황에 적절한(포멀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보다 부적절한(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자극 인물의 사교성, 역능성이 더 높게 판단되었다는 점이 주시된다. 이는 의복과 역할간의 불일치가 지각자의 부정적인 판단을 끌어낼 수 있다는 Kerr와 Dell(1976)의 견해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채용을 위한 면접 상황에서 여성 응모자의 신체적 매력성보다 의복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Johnson과 Roach-Higgins(1987)의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결과는 대상에 관한 정보가 적거나 모호할 때 의복 단서가 그에 관한 추론의 근거가 된다는 Forsythe, Drake와 Hogan(1985)의 견해와 본 연구에서 얼굴 매력성이 특질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험자가 의복 적절성보다는 얼굴 매력성에 더 치중하여 특질을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의복과 관련된 시간, 장소, 용도(T. P. O.)의 개념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의복의 상황적 적절성 판단 점수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표 2)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사고 중심 상황에서는 자극 인물의 의복 적절성이 사교성 특질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극 인물이 상황에 부적절한(포멀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보다 상황에 적절한(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자극 인물의 사교성이 높게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성과 중심 상황에서 사교성 차원 특질이 상황에 부적절한 것으로 파악된 캐주얼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높게 나타났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질 판단에 영향을 미친 의복 속성이 상황적 적절성보다는 의복 유형이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본 연구의 피험자인 대학생들에게 포멀한 의복보다는 캐주얼한 의복이 더 일상적이고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채용 면접 상황에서 의복 적절성 여부가 특질 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면접 담당자들을 피험자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두 상황 모두에서 특질판단에 미친 피험자의 성별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매력성 효과가 피험자의 성을 위시한 피험자 특성 차이에 의해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Eagly 등(1991), Byrne(1968)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Eagly 등의 해석에 비추어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남녀 모두에게 공유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극 인물의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이 특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 1, 가설 2와 두 독립변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특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얼굴 매력성과 의복 적절성이 상호작용하여 특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피험자의 성별이 자극인물의 얼굴 매력성, 의복 적절성과 상호작용하여 특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V. 결론

오늘날 동서양을 망라한 거대한 패션 산업의 실체가 증명하듯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한 사람들의 경제적, 시간적 투자와 노력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사회적 행동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운동, 화장, 성형 수술, 의복과 장신구 등을 통해 신체적 외모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들이 매력 없는 사람들보다 사회적 이점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하는가를 실증코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개인의 얼굴 매력성에 따른 신체적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과 의복의 적절성 여부가 특질 판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지각 대상이 착용한 의복이 특질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 사회에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신체적 매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사람들이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행동적 국면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또한 사람들의 외모관리에 관심을 갖는 의류학 분야에서 신체적 매력성과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의 존재와 그 내용을 실증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피험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했고, 지각대상으로 실제 인물이 아닌 사진을 이용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신체적 매력성 고정관념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 맥락에서 남녀 모두를 지각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다양한 연령층을 피험자로 하는 반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의류학 분야에서는 지각될 속성을 다양하게 조작한 의복들을 착용한 대상의 외모가 신체적 매력성 지각과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매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혜숙(1993). 신체 매력이 대인지각과 인상평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7(2), 46-62.
- 박은주, 이은영(1993). 의복구매에 관련된 상황적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2), 219-231.
- 이선경(1993). 남성복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aron, R. B., & Byrne, D. (1977).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2nd ed.). London: Allyn and Bacon, Inc.
- Brown, R. (1965). *Social psychology*(2nd ed.). New York: The Free Press.
- Brown, R. A. (1994). Romantic love and the spouse selection criteria of male and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2), 183-189.
- Brown, T. A., Cash, T. F., & Noles, S. W. (1986). Perception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mong college students: Selected determinants and methodological matt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3), 305-316.
- Bruch, M. A., Berko, E. H., & Hasse, R. F. (1998). Shyness, masculine ideology, physical attractiveness, and emotional inexpressiveness: Testing a mediational model of men's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84-97.
- Buss, D. M., & Barnes, M. E. (1986). Preferences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Buss, D. M.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hypotheses in 37 cultures. In Dijkstra, P. & Buunk, B. P. (1998).
- Chen, N. Y., Shaffer, D. R., & Wu, C. (1997). On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ing in Taiwan: A revised sociocultur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1), 117-124.
- Chia, R. C., Allred, L. J., Grossnickle, W. F., & Lee, G. W. (1998). Effects of attractiveness and gender on the perception of achievement-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4), 471-477.
- Christman, L. A., & Branson, D. H. (1990). Influe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dress of female job applicants on interview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3), 51-57.
- Demmer, M., & Thiel, D. L. (1975). When beauty may fai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6), 1168-1176.
- Dijkstra, P., & Buunk, B. P. (1998). Jealousy as a function of rival characteristic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1), 1158-1166.
- Dion, K. K. (1986). Stereotyping based on physical attractiveness: Issues and conceptual perspectives. In Chen, N. Y., Shaffer, D. R., & Wu, C. (1997).
- Dion, K. K., Berscheid, E., & Walter, E. (1972). What is beautiful is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4(3), 285-290.

- Dipboye, R. L., Arvey, R. D., & Terpstra, D. E. (1977). Sex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raters and applicants as determinants of resume evalu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3), 288-294.
- Dipboye, R. L., Fromkin, H. L., & Wilback, K. (1975). Relative importance of applicant sex, attractiveness, and scholastic standing in evaluation of job applicant resum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1), 39-43.
- Eagly, A. H., Ashmore, R. D., Makhijani, M. G., & Longo, L. C. (1991). What is beautiful is good, but...: A meta-analytic review of research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Psychological Bulletin, 110*(1), 109-128.
- Feingold, A. (1990).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eingold, A. (1992). Good-looking people are not what we think. *Psychological Bulletin, 111*, 304-341.
- Feingold, A. (1998). Gender stereotyping for sociability, dominance, character, and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of findings from the Bogus stranger paradigm.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24*(3), 253-270.
- Forsythe, S. M., Drake M., & Hogan, J. M. (1985). Influence of clothing attributes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characteristics. In Solomon M. R. (1985). *The Psychology of fashion*.
- Goudge, B. S., & Littrell (1989). Attributions for job acquisition: Job skills, dress, and luck of female job applica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4), 19-26.
- Guise, B. J., Pollans, C. H., & Turkat, I. D. (1982).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perception of social skill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4*, 1039-1042.
- Hickling, E. D., Noel, R. C., & Yutzler, F. D. (1979). Attractiveness and occupational status. *The Journal of Psychology, 102*, 71-76.
- Buckley, H. M., & Roach, M. E. (1981). Attraction as a function of attitudes and dres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1), 88-97.
- Johnson, K. K. P., & Roach-Higgins, M. E. (1987). Dress and physical attractiveness of women in job interview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3), 1-8.
- Kaiser, S. B. (1983-1984). Toward a contextual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 synthesis of symbolic interactionist and cognitive theoretical perspectiv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1), 1-9.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Kelley, E., & Sweat, S. (1983-1984). Correspondent inference: Theoretical framework for viewing clothed appeara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 49-54.
- Kenealy, P., & Shaw, W. (1988). Influence of children's physical attractiveness on teacher expectat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8*(3), 373-383.
-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5-203.
- Lennon, S. J., & Davis, L. L. (1989).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I: The stages of social cogni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1), 1-9.
- Lucker, G. W., Beane, W. E., & Helmreich, R. L. (1981). The strength of the Halo effect in physical attractiveness research. *The Journal of Psychology, 107*, 69-75.
- Miller, A. G. (1970). Rol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 impression formation. *Psychometric Science*, 19, 241-43.
- Moran III, J. D., McCullers, J. C., & Banilivy, M. (1982). Young children's conception of physical attractiveness as evidenced in human figure drawing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55-361.
- Raven, B., & Rubin, J. (1976). *Social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Rich, J. (1975). Effects of children's physical attractiveness on teacher's evalua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599-609.
- Rosencranz, M. L. (1972). *Clothing concepts*. New York: Macmillan Company, 51.
- Rowatt, W. C., Cunningham M. R., & Druen, P. B. (1998). Deception to get a da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11), 1228-1242.
- Rowold, K. L. (1984). Sensitivity to the appearance of others and projection as factors in impression manage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05-111.
- Stroebe, W., Insko, C. A., Thompson, V. D., & Layton, B. D. (1971).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attitude similarity, and sex on various aspects of interpersonal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1), 79-91.
- Schneider, D. J. (1973).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294-309.
- Wallster, E., Aronson, V., Abrahams, D., & Rottmann, L. (1966). The importance of physical attractiveness in d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08-516.
- Wiederman, M. W., & Hurst, S. R. (1998). Body siz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among young adult women: Relationships to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esteem. *Journal of Sex Research*, 35(3), 272-281.
- Workman, J. E. (1984-85). Effects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attire on attributions of personal disposition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1), 20-24.
- Wheeler, L., & Kim, Y. M. (1997). What is beautiful is culturally good: The physical attractiveness stereotype has different in collectivistic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8), 795-800.
- Zanden, J. W. (1981). *Social psychology*(3rd ed.). N. Y.: Random House.